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첫 현장 소통 경기도에서 시작

- 9. 30. 경기도서관에서 ‘2026 제1차 도서관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 공공대학전문·학교도서관 등 관종별 우수 사례 공유, 인공지능 시대 사서 역할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 김기영, 이하 위원회)와 함께 9월 30일(수), 경기도서관(수원시 영통구)에서 ‘2026 제1차 도서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제9기 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도서관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위원회와 현장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도서관과 사서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깊다.

경기도 내 공공·대학·전문·학교도서관, 관종 넘어선 협력 기반 모색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공공·대학·전문·학교도서관 등 다양한 종류의 도서관 관계자 120여 명을 비롯해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의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등 주요 도서관계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관종별 도서관 운영 모범 사례를 발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관종을 넘어 협력의 기반을 다진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 분야에서는 경기도서관 윤명희 관장이 ‘경계를 넘어, 연결의 힘으로: 경기도서관이 만드는 광역 도서관 협력 생태계’를, ▲대학도서관 분야에서는 서울예술대학교 임신애 예술정보센터장이 ‘대학도서관의 지자체 기관 도서관 간 협력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학교도서관 분야에서는 보평고등학교 이은주 사서

교사가 ‘교실과 도서관이 만나면 수업이 달라집니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함께 만드는 도서관 협력 수업’ 사례를, ▲ 전문도서관 분야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은경 수석연구원이 ‘정보를 넘어 연구를 잇다: 전문도서관의 내부 소통과 외부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김기영 위원장, 추미애 경기도지사과 경기도 도서관 현안 논의

한편, 김기영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도서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 공공도서관의 약 25%*가 있는 경기도는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연결하는 지식문화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특히 2025년 10월에 개관한 경기도서관은 인공지능, 기후 환경 등 미래 의제를 다루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경기도 공공도서관 328개관/전국 1,328개관(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5년 말 기준)

문체부와 제9기 위원회는 경기도에서의 첫 ‘도서관 현장 소통 간담회’에 이어 11월 18일에 서울에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광역별로 이어가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 소통 간담회가 현장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사서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내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사회에 꼭 필요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문체부는 도서관인(人)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업해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6 제1차 도서관 현장 소통 간담회’ 포스터
2. ‘2026 제1차 도서관 현장 소통 간담회’ 추진 일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책임자	과장	조선희 (044-203-2621)
		담당자	서기관	김태경 (02-590-6274)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

2026

제1차 도서관

현장소통간담회

“경기도 있다”

일시
2026. 9. 30.(수)
14:00-16:30

장소
경기도서관
경기플래닛홀

| 주 최 |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경기도  한국도서관 협회  (사)공공도서관협의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KSLA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추진목적

-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도서관 정책 현장 방문 및 지역내 관종별 도서관 현황 공유로 국가도서관위원회와 현장 간의 소통 강화
- 지역 내 관종별 도서관 및 도서관과 타 기관과의 소통·협업·연대 등 네트워킹 기반으로 사서들의 현업에서의 동기 부여와 지역 내 도서관 위상 제고
- 지역 내 관종별 도서관 운영 모범 사례* 공유로 관종별 상호 협력 방안 모색

* 지속가능성, 관종별·관종간·타기관 간·조직 내 다른 기능과의 협업 등

□ 추진 개요

- (행사명) 제9기 국가도서관위원회 2026 제1차 도서관현장소통간담회 “경기도 잇다
- (일시/장소) '26년 9월 30일(수) 14:00-16:30/ 경기도서관 경기플래닛홀
- (주최) 국가도서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경기도서관·한국도서관협회·공공도서관협의회·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참석대상) 경기도(교육청 포함) 도서관 관종별 도서관 관계자 등 120명

□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14:00~14:02	02'	개회		
14:02~14:10	08'	환영사 (모두발언)	김기영 국가도서관위원장	
14:10~15:10	60'	관종별 도서관 사례 발표	공공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경계를 넘어, 연결의 힘으로 : 경기도서관이 만드는 광역도서관 협력 생태계
			대학	임신애 서울예술대학교 예술정보센터장 대학도서관의 지자체·기관·도서관간 협력 사례
			학교	이은주 보평고등학교 사서교사 교실과 도서관이 만나면 수업이 달라집니다 :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함께 만드는 도서관 협력수업
			전문	남은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보를 넘어 연구를 잇다 : 전문도서관의 내부 소통과 외부 협력
15:10~15:40	30'	휴식 및 네트워킹		
15:40~16:20	40'	토론 및 의견 나눔	[좌장: 장인호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6:20~16:30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마무리 말씀	